

통일교육 선도대학 4차년도('19년) 성과보고용

**「통일교육 선도대학 지정·육성사업」  
‘19년(4차년도) 연차보고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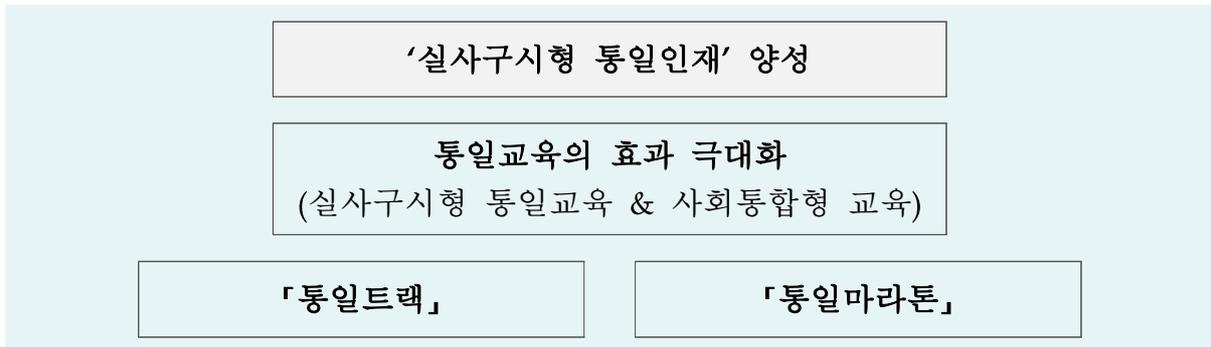
**2020. 1**

**아주대학교**

# I 4차년도 사업 개요

## 1 기본 구상(성과 목표)

- 아주대학교 『통일교육 선도대학』 사업 목표
  - ☞ ‘이공계 중심의 실사구시·사회통합 모델’
    - ‘실사구시형 통일인재’ 양성 : 대학의 구성적·지리적 특성을 활용한 통일 교육을 통해 실사구시형·사회통합형 통일교육
    - ‘이공계 중심의 “실사구시·사회통합” 모델’ 확산 : 『통일트랙』 과 『통일마라톤』의 통합 운영



- 2019년 사업의 기본구상
  - ☞ ‘이공계 중심의 실사구시·사회통합 모델’ 완성화 및 확산
    - 아주대학교 「통일교육 선도대학」 사업의 지난 3년간 핵심성과를 바탕으로 『통일트랙』의 제도화 및 완성화 비교과로서의 『통일마라톤』 모델 보급·확산
      - 『통일트랙』 제도화 및 완성 : 교양교과목 2과목 6개 분반 정례화
        - ☞ 통일트랙 수강생 확대 및 기본 교재 개발
        - ☞ ‘한반도개발학과’ 공공정책대학원개설 추진
      - 『통일마라톤』 모델 보급·확산 : 타지역·타대학으로 대상 확대 운영
        - ☞ 교과 및 비교과 통일교육 메뉴얼 공유 및 보급
        - ☞ 타대학 학생들에게 다양한 통일교육의 기회 제공

○ 자체 성과지표에 따른 목표 '참여 학생수' 및 목표 '참여자 만족도'

구 분	2016년		2017년		2018년		2019년
	목표	성과	목표	성과	목표	성과	목표
통일교육 참여 학생수(명)	320	1,389	360	2,460	400	2,780	400 ↑
통일교육 참여자 만족도(%)	64.0	87.5	72.0	87.6	80.0	85.1	80.0 ↑

- 2019년도 참여 학생수 목표 : 400명 이상
- 2019년도 참여자 만족도 목표 : 80% 이상

\*성과지표: 『통일교육 활성화 지수』

- 사업별 통일교육 참여 학생수의 정량적 평가 및 사업별 통일교육 참여자 만족도의 정성적 평가에 대한 종합적 평가
- 교과 및 비교과교육에 참여한 '참여 학생수'와 '참여자 만족도'에 모두 동일하게 50%의 가중치를 적용
- 성과지표 산출식

$$\text{통일교육 활성화 지수}(\%) = \left( \frac{\text{참여 학생수}}{\text{목표 학생수}} \times 50 \right) + \left( \frac{\text{참여자 만족도}}{\text{목표 만족도}} \times 50 \right)$$

\* 성과지표 선정기준

- 교과
  - 통일 교과의 전면성 평가
  - 전체 학생 대비 통일교육 관련 교과 수강생 수 및 수강생의 만족도
- 비교과
  - 통일교육의 전면성 및 지속성 평가
  - 북한 및 통일관련 비교과 활동 참여 학생수 및 참여자의 만족도

○ 성과지표 산출기준

- 참여 학생수 : 입학정원의 10%인 200명이 목표
  - ⇒ 교과+비교과를 합할 경우, 참여 학생수의 최종 목표는 400명 이상
- 참여자 만족도 : 5점 척도로 조사하여 4.0점, 즉 80% 이상 목표
  - ⇒ 교과+비교과를 합할 경우, 참여자 만족도의 최종 목표는 80% 이상

## 2 2019년 추진과제

추진과제		주요내용	성과목표와의 관련성
통일 교육 모델 연구 개발	교과목 개발·운영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교과목 및 교재 개발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교양강의 교재 콘텐츠 개발</li> </ul> </li> <li>○ RA(연구조교 장학금)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통일교육 선도대학 사업 참여 및 전공 및 관심사 바탕으로 자발적인 연구</li> </ul> </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아주대학교 『통일트랙』 교양과목의 기본교재 완성</li> <li>○ 학생 전공 및 관심사를 바탕으로 통일연구 → 실사구시 통일인재 양성</li> </ul>
	실사구시+사회통합형 모델 개발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실사구시와 사회통합형 관련 종합적인 연구 개발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북한개발 지원전략과 이공계대학 통일교육 커리큘럼 개선안</li> </ul> </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북한개발 지원전략에 입각한 이공계 중점 통일교육 방안 제시 및 보급</li> </ul>
강좌 운영	교과목 운영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교양 교과목 운영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통일트랙』의 교양과목 운영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북한사회의 이해」, 「통일한국의 이해」 2과목 6개분반 운영</li> </ul> </li> </ul> </li> <li>○ 특강지원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통일트랙 교과목 외, 타전공 수업 등에서의 특강 지원 확대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2019년 총 15개 특강진행</li> </ul> </li> </ul> </li> <li>○ 현장학습 지원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통일트랙 교과목과 연계하여, 수강생 및 대학생들에게 실질적인 통일 및 분단현장 체험 기회 제공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1학기, 2학기 진행</li> </ul> </li> </ul> </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통일트랙』 제도화 및 완성 (정기적 개설)</li> <li>○ 북한이탈주민, 개성공단 전문가, 해외강사 등 북한 및 통일에 대한 다양한 전문가 초청 특강을 통해 실사구시 &amp; 사회통합형 교육제공</li> <li>○ 현장학습을 통해 사회통합과 통일에 대한 학생들의 관심제고 및 경험 기회 제공</li> </ul>
	학생주도 활동지원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통일관련 동아리 활동 지원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내일래일' 활동 지원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북한체험부스 운영, 통일빅데이터발표회, 통큰파티 등</li> </ul> </li> </ul> </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통일관련 동아리 지원을 통해 지속적이고 자발적인 통일관련 학생활동 증진 및 실사구시형 통일인재 양성</li> </ul>
	해외현장연구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미래세대 통일탐사 어드벤처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북중러 접경지역 및 독일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2019 북중러 접경지역 탐방」 및 「2019 한독청년포럼: 여러 도시의 기억」</li> </ul> </li> </ul> </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해외현장들을 직접 보고 체험함으로써, 대학생들에게 분단현실 체감 및 통일에 대한 사유와 연구를 유도함으로써, 실사구시형 통일인재 양성</li> </ul>
	마음잇기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북한이탈주민과 편지주고받기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편지쓰기 부스 및 전시</li> </ul> </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남북한 간의 사회문화적 차이, 통일 미래를 위한 사회통합의 중요성 등 통일에 대한 의식 제고(사회통합형 교육)</li> </ul>

모델 보급 및 확산	통일교육 모델보급·컨설팅	○ 출장비 및 간담회 등 - 모델보급을 위한 출장비 및 간담회	○ 아주대 통일교육 모델 보급 및 확산을 위한 출장 및 간담회
	아주한반도대학생 포럼	○ 아주(Ajou) 특별한 통일토크 - 독일대사·수원시장 초청  ○ 전국대학생통일포럼 및 캠프 - 한바탕(한정컨 공동주관) * 1차, 2차 한바탕 및 본회의 OT와 본회의를 거쳐 독트린 제출	○ 전문가를 초청하여, 독일의 통일경험 및 지역정부의 통일 관련 담론 활성화  ○ 전국의 2030세대의 통일관련 주도적 담론 활성화 및 합의 도출(실사구시형 통일인재 양성)
	통일교육 연합학술대회	○ 통일교육 선도대학 9개 대학 성과발표회 - 아주대 주관	○ 통일교육 선도대학들의 성과 공유 및 모델보급
	통일교육 역량강화 세미나	○ 코리아 단번도약 포럼 - 1회~5회 진행  ○ 10월 1일 특별학술회의 - 한반도 정세와 평화과제 * 내나라연구소, 아주대 공공정책 연구소와 공동주최	○ 타기관과 다양한 세미나를 개최하여 통일교육모델 공유 및 확산
	말랑말랑 과학토크쇼	○ 제9-12회 말랑말랑 과학토크쇼 - 아주대 1회, 타대학(성균관대 수원캠퍼스, 충남대, 한동대) 3회	○ 아주대 특성을 살린 비교과 통일교육 모델 확산
	통일교육 해외 네트워크 구축	○ 통일교육 해외네트워크 구축 - 중국 연변대	○ 통일인식의 해외 확산 및 통일마라톤 활성화를 위한 네트워크 구축
	북한의 기술활용 창업아카데미	○ 아이디어뱅크in북한 - 교육편 1회 - 멘토링편 1회	○ 북한 과학기술을 활용해 창업에 이르는 프로세스를 연구하여 보급 및 실사구시형 통일인재 양성
	동영상 강의	○ TED식 옴니버스 온라인 특강 강연 제작	○ 청년·대학생층에 특화된 강연으로 통일의식 제고 및 통일공감대 확산(사회통합형 통일교육)
	지역 순회교육	○ 찾아가는 통일X청춘 토크쇼: 젊은 끈대, 잠깨어오라! - 한라대(원주), 경북대(대구) * 브이로그 영상 제작	○ 통일교육선도대학이 없는 지역대학에 찾아가 통일평화 담론 확산 및 청년의견청취 (사회통합형 통일교육)  ○ 일방적 강의를 아닌 새로운 형식의 통일교육 모델 보급

## II 4차년도 사업 성과

### 1 핵심 성과

#### 『통일트랙』과 『통일마라톤』 통합운영을 통한 이공계 중심의 실사구시·사회통합모델 완성화 및 확산

##### ① 『통일트랙』 완성화 : 교양 교과목 2과목 6개 분반 정례화

##### ○ 『통일트랙』 수강생 확대 및 기본 교재 개발

※ 학사과정 학사운영규칙 융·복합 트랙 ‘통일트랙’ 운영(2017년 9월부터 시행)

##### ◎ 「통일트랙」 개요

###### - 목적:

(통일교육 선도대학 사업 관련) 통일교육 주제 융복합 트랙을 통해 다양한 전공의 학생들이 자기 전공에 통일을 접목하여 비전 설계

###### - 구성: 북한 및 통일관련 2개 교과목(『북한 사회의 이해』, 『통일한국의 이해』 등)을 포함하여 12학점 이상 이수

###### - 주관 및 참여학과

· 주관: 다산학부대학

· 참여: 경영학과, 경제학과, 정치외교학과

\* 「통일트랙」을 이수할 경우, 졸업장에 ‘통일트랙 이수’ 기재

###### - 궁극적 목표: 「실사구시형 통일인재」 양성



##### - 『통일트랙』 수강생 확대

구 분	2016년	2017년	2018년	2019년
통일교육 참여 학생수(명)	151	344	452	636
통일교육 이공계·의료계 학생수(명)	72	143	231	311

\* 『통일트랙』 참여자 중 48%가 이공계·의료계 전공학생

○ '한반도개발학과' 공공정책대학원개설 추진

- 한반도개발 및 남북교류협력 실무 가능한 전문 인재 양성을 위해, 아주대 학교 공공정책대학원에 '한반도개발학과' 개설 추진(19년 1월~)
- 현재 아주대학교 내 논의 중(총장 승인사항)

## 아주대 대학원 한반도개발학과 신설 추진(안)

### ■ 목표 · 필요성 · 배경

● 한반도 통일시대 대비 아주대의 특화 교육·연구 분야 육성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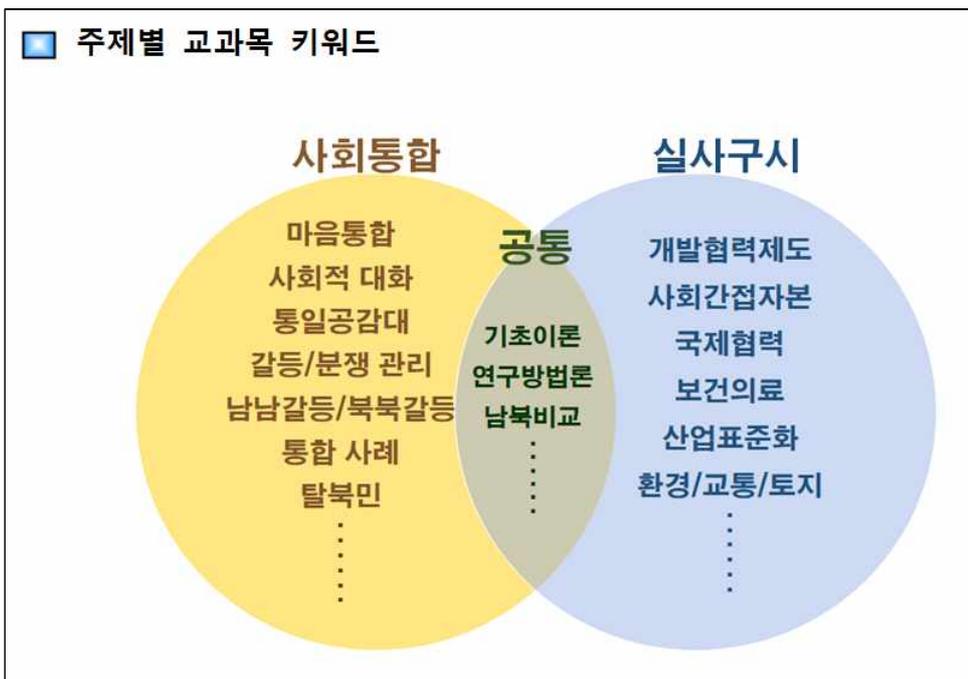
(영역 특화) 한반도개발 관련 남북 산업 및 제도 표준화·보건의료·통합정책 등  
 (지역 특화) 경기도 남북교류협력 전문 인력 수요에 대응(공무원·기업인·정책전문가 지망생 등)

● 경기도 평화부지사 면담 통한 도내 남북교류협력 전문 인력 수요 확인("19.1.21)

"남북교류협력 현장에 바로 적용 가능한 정책과 전문 인력 태부족"  
 "아주대 특화 교육 프로그램 추진 시 협력방안 모색(계약학과·위탁교육생 등)"

- TF 구성 및 교과목 구성안 도출(19년 3월)

### ■ 주제별 교과목 키워드



## ② 『통일마라톤』 모델 보급·확산 : 타지역·타대학으로 대상 확대 운영

### ○ 실사구시형 『통일마라톤』 모델 공유 및 보급·확산

- 해외현장연구 : 북중러 접경지역과 한독청년포럼의 참가학생 아주대학교 이외, 타지역·타대학교 학생 참여 유도
  - \*북중러 접경지역 탐방 : 30명(아주대 9명)
  - \*한독청년포럼 : 10명(아주대 3명)
- 한바탕 : 한반도정책컨센서스(이하 한정컨)와 공동주관으로, 전국 대학생 및 2030청년 대상 통일 컨센서스 도출
- 말랑말랑 과학토크쇼 : 제9회 아주대를 제외하고, 이후 제10회~12회 총 3회 타대학에서 진행
  - \* 제 9회 말랑말랑 과학토크쇼(아주대학교)
  - 제10회 말랑말랑 과학토크쇼(성균관대 자연캠퍼스)
  - 제11회 말랑말랑 과학토크쇼(충남대학교)
  - 제12회 말랑말랑 과학토크쇼(한동대학교)

### ○ 사회통합형 『통일마라톤』 모델 공유 및 보급·확산

- FNF-AJOU PEACE ACADEMY : 강좌운영의 현장학습 모델을 프리드리히 나우만재단(FNF)과 공유 및 공동주관하여 나우만재단의 독일 학자 초청 특강과 통일교육 선도대학 사업의 현장학습을 패키지로 한 아카데미 진행
    - \* 통일트랙 수강생 외, 외국인 청년 참여
  - 지역 순회교육 : 통일교육 선도대학이 없는 원주 한라대와 대구 경북대에서 오픈채팅방을 이용한 강연 및 토크형식의 새로운 사회통합형 모델보급
  - 영상 제작(한바탕, 지역 순회교육) : 통일교육에 대한 대학생들의 참여와 흥미를 돋우기 위해, 동영상 강의, 지역 순회교육 브이로그, 한바탕 본회의 OT와 본회의 인터뷰 등의 영상 제작으로 향후 아주대학교 『통일마라톤』의 확산
- 비교과 프로그램 중 4건의 행사 제외 모든 프로그램은 타지역 및 타대학 학생 참여 유도, 특히 2018년(3차년도)까지 '말랑말랑 과학토크쇼'와 같은 실사구시형 통일마라톤 모델 확산이었다면, 2019년(4차년도)은 사회통합형 모델과 함께 보급
- \* 아주대 진행 4건 프로그램 : 1학기 현장학습, 아주(Ajou) 특별한 통일토크, 특별학술회의, 제9회 말랑말랑 과학토크쇼

## 2 추진 과제별 실적

### □ 대학 통일교육 모델 연구 개발

#### ① 교과목 개발·운영 : 통일·북한 교양강의 교재 콘텐츠 개발

##### ○ 달성목표

- 대학 교양강의(통일트랙)에서 실제 사용가능한 통일·북한 강의교재 집필
- 16주차 한 학기에 북한 및 통일에 대한 기본적인 이해 가능한 교재 개발
- 강의현장에서 활용 가능한 핵심개념과 토론주제 도출
- 향후 출판을 추진하여 통일교육 선도대학 기본교재 모델 보급·확산

##### ○ 추진실적

- 기존 북한·통일 개론서에 대한 비교분석 및 문헌연구를 통해 산발적으로 기재되어 있는 내용을 16주차 강의에 맞도록 재편하여 구성
- 북한 및 통일에 대해 16주차 한 학기 강의에 맞추어 교재 편제를 구성하여 강의자 및 학습자가 북한 및 통일에 대한 이해에 있어 핵심개념과 기본내용을 비교적 단기간에 인지·숙달할 수 있는 교재 콘텐츠 집필

강의주차	내용	연구진
1강	북한의 이해를 위한 첫걸음	정O영
2강	북한의 역사 part1 : 해방과 국가 건설	정O영
3강	북한의 역사 part2 : 새로운 길의 모색	정O영
4강	북한의 정치 part1 : 북한의 정치체제	정O석
5강	북한의 정치 part2 : 미시공간의 정치권력	정O석
6강	북한의 경제 part1 : 사회주의 계획경제	윤O주
7강	북한의 경제 part2 : 경제위기와 시장화	황O희
8강	북한의 문화예술·스포츠	황O희
9강	북한의 사회 part1 : 북한 주민의 생애사	윤O라
10강	북한의 사회 part2 : 북한 주민의 생활상	최O미
11강	한반도와 국제정치	최O미
12강	북한의 군사 : 병영국가	조O희
13강	남북관계	조O희
14강	남북경협	정O석
15강	북한인권	조O희, 강O철
16강	통일 한반도의 미래	정O영, 정O석, 조O희, 강O철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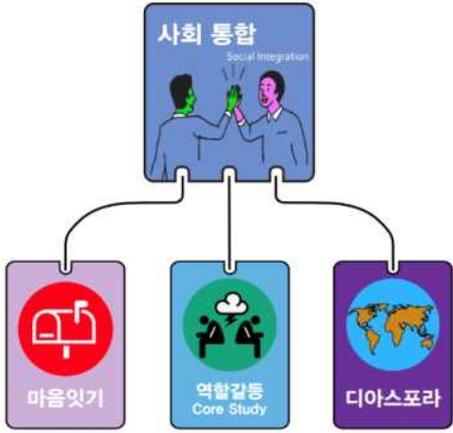
② 교과목 개발·운영 : RA(연구조교 장학금)

○ 달성목표

- 통일교육 선도대학 사업 진행 참여 및 각 전공 및 관심사를 바탕으로 학생의 자발적인 연구를 유도하여 실사구시형 통일인재 양성
- 학생의 통일에 대한 관심과 이해도 증진 및 개인이 주도적으로 통일지향적인 의식의 변화를 이끌고 이를 주변 학생들에게 함양할 수 있도록 유도

○ 추진실적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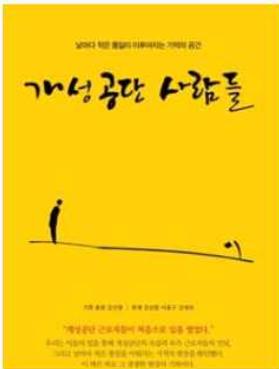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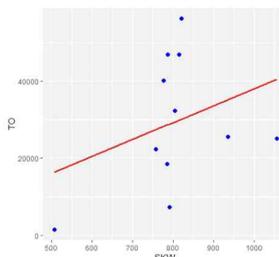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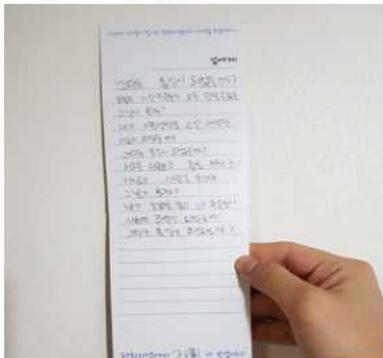
- 2019년 3월부터 12월까지 총 6명의 연구조교 학생 참여
- 통일교육 선도대학사업 진행 참여 및 각자 다음과 같은 활동 및 연구를 함
- 3월 ~ 6월 : 조○준, 조○진 2인(관심사와 특기를 살린 통일관련 활동)

조○준(블로그 기사 작성)	조○진(디자인 활용 통일교육모델 홍보)
<p>"헨라스 베로나의 이승우와 페루자의 한광성이 세리에 B에서 격돌했다"</p> <p>이탈리아 유명 스포츠 매체 가제타 델로 스포르트는 지난 9일 세리에 B(이탈리아 2부 리그)에서 진행된 남북 Derby를 역사적 만남이라는 코멘트와 함께 집중 조명했다.</p> <p>이승우와 한광성은 이번 시즌 활동 무대가 같아졌다. 이승우의 소속팀의 강등과 한광성의 페루자 임대 이적으로 두 선수의 맞대결은 시즌 전부터 관심거리였다.</p> <p>결과는 이승우의 편정 승, 이승우는 경기에 선발 출전하여 2개의 유효 슈팅을 기록하는 등 맹활약을 펼치며 팀의 2 대 1 승리에 힘을 보탤 뻔했다. 반면, 한광성은 후반 21분 교체 출전하여 별다른 활약을 펼치지 못했다.</p> <p>타지에서 진행된 남북 Derby를 대수롭지 않게 생각할 수도 있다. 하지만, 두 선수의 만남 그리고 북한 선수의 해외 진출은 분명 우리에게 시사하는 바가 크다.</p> <p>남북 단일팀에 정당성을 부여할 수 있다</p> <p>2018 평창 동계올림픽에서 구성되었던 여자하키 남북 단일팀을 기억하는가? 남북 단일팀에 대한 여론은 엇갈렸다. 과거 원정화-리본희 다투던 단일팀과 비교하여, 평화 통일에 한 발자국 다가섰다는 긍정적인 평가도 있었지만, 경부의 강행으로 감독의 선수 선발권을 침해했다는 입장 역시 상당수를 차지했다. 상대적으로 기량이 뛰어나며 꾸준히 호응을 받았던 국내 선수 대신, 북한 선수를 엔트리에 포함시켜야 했기 때문이다.</p>  <p>사진=대형체육회 제공</p> <p><a href="http://aiu.ac.kr/221511124494">http://aiu.ac.kr/221511124494</a></p>	 

- 7월 ~ 8월 : 박○정, 이○진 2인(현장방문과 관심사를 통한 통일관련 활동)

박○정(현장방문 소감 작성)	이○진(관심사를 통한 통일연구)
<p>가장 먼저 발걸음을 옮긴 곳은 '통일 영원의 동산'이었습니다. 저는 평소 애절한 마음으로 우리나라의 독립을 위해 희생하신 분들의 역사를 돌아보면서, 현재 분단된 한반도의 현실에 대해 굉장히 안타깝게 느껴왔습니다. 그런 저의 마음을 대변해 주는 듯 현안 독립기념관에는 '통일 영원의 동산'이라는 사실을 알고 한걸음을 걸었습니다.</p>  <p>통일영원의 동산 / 통일영원의 동산 안내판</p> <p>그러나 사람들로 붐비던 다른 곳과 달리 굉장히 쓸쓸해 보이는 통일 영원의 동산이었습니다. 커다란 아치형의 조형을 일구는 특별한 것이 없었습니다. 통일에 무관심한 요즘 세대의 현실을 보여주는 듯했습니다. 물론, 모두가 통일에 긍정적으로 생각해야 한다는 것은 절대 아니지만, 대한민국 국민이라면 관심은 가져야 하는 분야임에도 불구하고 대부분의 사람들은 무관심으로 일관된 태도를 취하는 것이 안타까웠습니다.</p> <p><a href="http://aiu.ac.kr/221727941411">http://aiu.ac.kr/221727941411</a></p>	<p>"남한의 땅에서 북한의 영화가 울리다"</p>  <p>홍익이리얼 갤러리</p> <p>남한에서 북한의 영화를 일반민들에게 공식적으로 상영할 적이 있을까요? 이 질문에 대한 답은 'YES'입니다. 북한 영화의 경우 우리나라에서는 '특수자료'로 분류되어 영상자료의 상영이 매우 제한적으로 진행되어 왔습니다. 하지만 지금까지의 발표와 반대로 작년 부산국제영화제에서는 작년 7월 처음으로 북한 영화 9편을 공식적으로 상영했습니다. 상영된 북한의 영화는 장편 3편, 단편 6편입니다. 대표적인 상영작으로는 2016년 평양국제영화제에서 '최우수영화상'을 수상한 &lt;우리집 이야기&gt;(2016년)과 애니메이션 &lt;고통질서를 잘 지키자요&gt;가 있습니다. 특히, &lt;우리집 이야기&gt;는 어린나이에 7명의 고아를 키우며 산 한 여성의 실화를 바탕으로 한 인간드라마 형식의 영화입니다. 이러한 영화들에서는 북한의 가족 모습과 함께 학교 선생님이나 불이동산과 같은 평양의 모습들이 잘 드러나고 있죠.</p> <p>이렇듯 영화를 들여다보면 소스케 드러나는 북한 주민들의 삶을 엿볼 수 있습니다. 많이 화려하지는 않으나 웃자림과 조금은 신기한 그들의 모습, 생막했던 바와 비슷하기도 다르기도 한 그들의 문화는 이러한 영화들을 통해 우리에게 전합니다.</p> <p><a href="http://aiu.ac.kr/221633553166">http://aiu.ac.kr/221633553166</a></p>

- 9월 ~ 12월 : 어○민, 조○희 2인(책과 현장방문을 통한 통일관련 활동)

어○민(책과 통계연구 기사 작성)	조○희(현장방문 소감 작성)
 <p>위 지표를 가지고, 저는 개성공단 가동 이후 경제성과 어느 정도 관련이 있는지 알아보았습니다. 상관분석 수행 결과, 0.99를 나타내는 수치가 굉장히 연관되어 있음을 알 수 있었는데, 이는 NKW와 MIE의 관계로, 임무거점 수가 증가함에 따라 북측 근로자가 증가하게 됨을 의미합니다. SKW와 TO 상관성은 0.34로 남측 근로자의 수가 많을수록 북측 생산액이 0.34만큼 비례적으로 증가한다는 의미입니다.</p>  <p>변자가 심한 편임을 알 수 있는데, 이는 개성공단에 입주했던 기업들의 생산액 편차를 의미합니다. 즉 개성공단 내에서 시장편상이 발생할 수 있다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는 개성공단 사람들 인터뷰 사례에서 "인센티브를 달라."는 북측 인민의 말과 관련되는 것으로 보입니다.</p> <p><a href="http://aiu.ac.kr/221755357243">http://aiu.ac.kr/221755357243</a></p>	  <p>&lt;평화의 담에서 보낸 편지엽서&gt;</p> <p><a href="http://aiu.ac.kr/221702075504">http://aiu.ac.kr/221702075504</a></p>

### ③ 실사구시+사회통합형 모델 개발

: 북한 개발 지원 전략과 이공계 대학 통일교육 커리큘럼 연구

#### ○ 달성목표

- 실사구시와 사회통합형 통일교육은 아주대학교의 구성적 특성과 지리적 특성을 활용한 통일교육 모델로, 구체적으로 북한에 대한 지식과 전공분야 전문지식을 접목하여 실질적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하는 '실사구시' 통일교육과 '사회통합'을 통한 남북 주민들 간의 동질성 회복을 아주대학교 통일교육의 양축으로 설정하고 실천
- 교과목 개발을 위한 실사구시+사회통합형 모델 연구
- 평화경제를 위한 북한과의 경제협력에 강한 의지를 가지고 있는 현 정부에서 발간되고 있는 보고서들은 각 발간부처의 전문분야로 한정되어 있어, 사회 전 분야를 아우른 종합적인 북한 개발 마스터 플랜 도출이 필요함
- 이를 바탕으로 대학생들의 구체적인 통일관련 진로 계획과 창업 교육·평화경제에 대한 인식 제고에 활용하고, 대학통일교육에 반영 가능한 커리큘럼 모델 개발·보급을 시도하고자 함.

#### ○ 추진실적

##### - 연구진

- 책임연구원 : 조○훈(무급, 아주대학교 아주통일연구소 소장)
- 공동연구원 : 백○주(연세대학교 통일학 박사)  
이○권(아주대학교 화학과)  
구○림(아주대학교 아주통일연구소 연구원)  
금○룡(무급, 아주대학교 아주통일연구소 연구원)  
이○은(아주대학교 예방의학교실 연구강사)
- 연구보조원 : 이○원(Beyond The Boundary 연구원)

- 구성 : 북한 현황 및 주요 개발 아젠다 분석 및 대한민국 북한개발지원 체계 연구 진행, 특히 식량·보건·에너지·수자원·사회간접자본 및 산업·과학기술·거버넌스 분야별 개발지원 목표 제시
- 기대효과 : 본 보고서는 정책적인 시사점 뿐만이 아니라, 향후 아주대학교 이공계·의료계 특성의 대학통일교육 교과목으로 활용

## □ 통일교육 강좌 운영

### ① 교과목 운영

#### ○ 달성목표

- 이공계 전공자를 포함한 많은 학생들이 북한과 통일관련 내용의 수업을 접할 수 있도록 교과목을 운영하여 통일교육의 기회 및 대상을 확대
- 학생의 통일의식 제고뿐만 아니라 통일교육의 질적 변화를 모색하기 위한 현장학습의 적극적인 활용
- 정량적 측면 : 교양 교과목 참여 학생수(수강생)를 『통일교육 선도대학』 지정·육성사업 최종목표(입학정원의 10%)인 200명으로 산정
- 정성적 측면 : 교양 교과목 및 전공 교과목 참여자 만족도를 『통일교육 선도대학』 지정·육성사업 최종목표인 80%로 산정

#### ○ 추진실적 - 교과

연도	학기	구분	과목명	분반	수강인원(명)	이공·의료계
2019	1	교양	북한사회의 이해	4	207	109
			통일한국의 이해	2	88	42
	2	교양	북한사회의 이해	4	218	105
			통일한국의 이해	2	123	55
계					636	311

- 정량적 측면 : 교양 교과목 참여 학생 수는 총 636명으로 아주대학교 입학정원의 10%인 200명의 3배 이상이며, 이공·의료계 전공 학생 수는 311명으로 전체 수강생의 48%를 차지
- 정성적 측면 : 2019 교양 교과목 참여자 만족도는 『통일교육 선도대학』 지정·육성사업 최종목표인 80%로 넘겨 88%가 만족 이상을 선택
- 참여자 만족도는 5점 척도(매우 불만족, 불만족, 보통, 만족, 매우 만족)로 조사하여 4.0점, 즉 80%가 목표이며, 설문조사 결과 4.72점, 88%가 만족 및 매우 만족 선택

○ 추진실적 - 특강(15개 진행)

연도	학기	특강 강연자	주제	수강생
2019	1	김○향	북한이탈주민의 삶과 통일	26
		이 ○	북한사회의 이해, 그리고 변화	11
		이○은	북한 전조선 마을 주민들의 삶	38
		홍○표	먼저 온 통일, 개성공단	139
	2	홍○표	먼저 온 통일, 개성공단	56
		배○현	국제통상 M&A와 북한의 외국인투자법제	56
		전○길	통일과 기업가 정신	71
		박○한	북한 군사전략 기원과 변화	48
		심○보	북한사회 이해: 북한을 이해하기 어려운 이유	59
		홍○표	개성공단 남북통합경협의 의의와 통일 (영어강의)	25
		배○찬	한반도 역사와 통일한국	52
		최○엽	국제통상법과 WTO 및 남북경협 시사점	56
		김○수	준비된 통일은 축복입니다	48
		Dr. Bispinck	"30 Years after the Fall of the Berlin Wall: The German Division, East-German Refugees and Problems of Integration (then and now)"	100
		김○춘	북한사회 이해	65
계				850

○ 추진실적 - 비교과(현장학습)

연도	일 자	장 소	대 상	참여인원(명)	비 고
2019	5월 25일	파주DMZ	아주대학교 통일트랙 수강생 및 대학생	41	타대학 및 외국인 참가 기회 제공
	11월 30일	강화도	아주대학교 대학생 및 외국인 학생	68	
계				109	

\* 2019-1학기 현장학습 : 파주 DMZ

일시	2019년 5월 25일 토요일(통일교육주간사업)
장소	파주 임진각 등 DMZ
주제	아주(Ajou) 특별한 5월의 주말
형식	가이드 투어 및 북한이탈주민 강의
참석인원	교직원 및 학생 41명



1학기 현장학습 단체사진



1학기 현장학습 현장사진

\* 2019-2학기 현장학습 : 강화도

일시	2019년 11월 30일 토요일
장소	강화도
주제	FNF-AJOU PEACE ACADEMY
형식	가이드 투어 및 북한이탈주민 강의
참석인원	학생 및 외국인 68명



2학기 현장학습 단체사진



2학기 현장학습 특강 및 수료증 배부

② 학생주도 활동지원 : 동아리

o 달성목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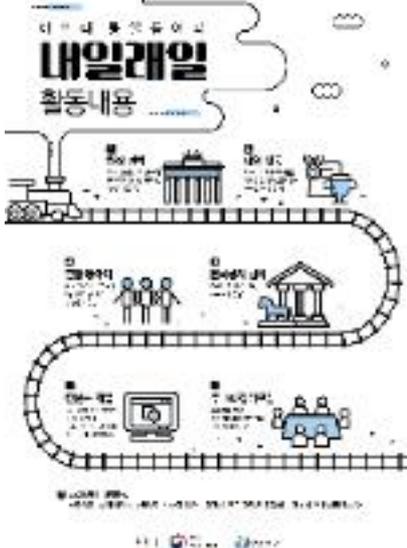
- 통일관련 동아리 지원을 통해 지속적이고 자발적인 통일과 관련 학생활동 증진 및 '실사구시형 통일인재' 양성
- 정량적 측면 : 모든 비교과 활동 참여 학생수를 『통일교육 선도대학』 지정·육성사업 최종목표(입학정원의 10%)인 200명으로 산정 - 본 단위사업 경우 10명이 목표(1년 동안 꾸준히 활동하는 동아리원 수)
- 정성적 측면 : 참여자들의 북한 및 통일에 대한 실용적 관심도 제고

o 추진실적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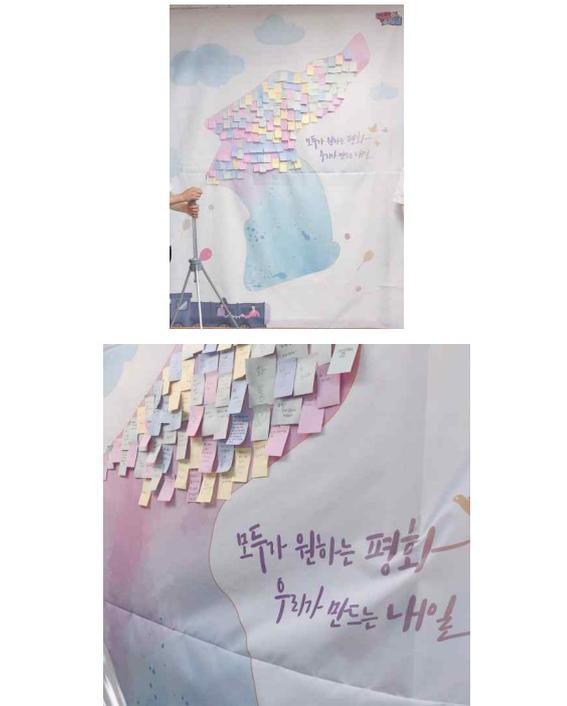
- '통일'동아리 모집 공고 및 지원으로 선발된 1개의 동아리 : 내일래일

<p>‘통일’동아리 모집 공고</p>	<p>동아리 심사</p>	<p>선정된 ‘내일래일’동아리</p>

- ‘내일래일’의 뜻은 ‘내일’을 뜻하는 남한의 말과 동의어인 북한의 ‘래일’을 합친 것으로, 남북이 같이 내일을 바라보며 하나가 되자는 의미
- 소속 동아리원 수는 13명이며, 동아리원 계속 추가 모집
- 현재 동아리원은 9명의 이공계 전공생과 4명의 문과계열 전공생으로 구성 (아주대 9명 외, 타대학생 4명)

	<p><b>동남동아시아 대학연합</b> 2019. 5. 29. (수) ~ 5. 30. (목) 14:00 ~ 17:00</p> <p><b>북한연동아리 와인러인 이벤트모임</b></p> <p><b>기초지식</b> 평화와 통일에 대해 견해가 엇갈리는 경우를 대안별 - 남북 분단(왜?) 북한과 왜? 상호 이익과 이익(공포)영도 기반 - 동아시아 평화에그 상황 나누어 - 평화대상 통일경시 의견을 위한 학생부스운영, 문화공연도 등 다양한 종류 - 심리검사, 공연/무용공연, 세미날등 등 유익한 행사참여 - 차세대 수배 대안 프로그램 등 리더십 향상</p> <p><b>목적</b> 다주연일연구수 및 경험 행사 유망증거 - 동아시아 평화지원단 - 일대스물2 차기 통일리플렛서 등 - 미디어생존화 경험종기회연대기 가능합니다</p> <p><b>지원문의</b> 주소 : 서울특별시 강남구 테헤란로 77번길 10 '유적' 상(이동식) 세운가정들기</p> <p><b>문의처</b> 이메일 : <a href="mailto:naeil@naeil.or.kr">naeil@naeil.or.kr</a> 이름 : <a href="https://www.facebook.com/naeil.or.kr">https://www.facebook.com/naeil.or.kr</a></p>	
<p>‘내일래일’ 로고</p>	<p>‘내일래일’ 동아리원 모집</p>	<p>‘내일래일’ 활동내용 홍보포스터</p>

- ‘내일래일’은 2019년 상반기 아주대학교 축제인 5월 29일(수)~5월 30일(목)에 주간부스에서 ‘북한말 퀴즈, 한반도 포토존 및 북한교복 체험’ 행사 진행

	
<p>‘내일래일’ 부스안내 포스터</p>	<p>‘내일래일’ 부스 중, 한반도 포토존</p>



‘내일래일’ 부스 모습



‘내일래일’ 부스 중, 북한교복 체험

- ‘내일래일’은 2019년 하반기에는 자체적으로 진행한 학술발표회 ‘통일 빅데이터 분석’과 대학생 통일 네트워킹 데이 ‘통큰파티’를 개최



학술발표회 ‘통일 빅데이터 분석’ 행사사진



대학생 통일 네트워킹 데이 ‘통큰파티’ 홍보

- '내일래일'은 2019년 신설된 동아리로, 4월부터 본격적인 활동을 시작하여, 5월 아주대학교 주간부스에서 북한말 퀴즈, 북한 친구들에 편지(한반도 모양의 현수막에 포스트잇으로 부착), 한반도 포토존을 진행하여 200여명의 학생들과 소통(5/29-31)
- 6월 서울시에서 주최한 '2019 평화, 통일 시민아이디어 공모전' 정책브랜드 분야에 도전하여 "우리 평화하자"라는 작품으로 본선 진출
- 9월 대한민국 청년들이 가지고 있는 통일에 대한 생각을 빅데이터로 정리하여, 학술발표회 진행(11/28)
- 통일보드게임을 개발로 공모전에서 우승한 '통피아' 관계자를 직접 섭외 및 특강자로 초청, 통일 동아리 연합 행사 '통큰파티' 진행(12/6)

### ③ 해외현장연구 : 미래세대 통일탐사 어드벤처

#### o 달성목표

- 청년세대에게 분단과 통일에 대한 사유를 끌어내는 기회 제공과 더 나아가 실사구시형 통일인재로 양성하고자, 북중러접경지역 및 독일 탐방기회 제공
- 북중러 접경지역 탐방 : 분단현실을 직접 체감할 수 있는 북중러 3국의 접경지역을 탐방하고 중국 연변과학기술대학교, 러시아 극동대학교 강연을 통해, 중국과 러시아의 대(對)한반도 시각, 전략 등을 알아보며 조선족, 고려인들에 대한 인식 재고
- 독일 청년들과의 포럼 및 교류를 통해 분단과 통일의 경험을 가진 국가의 문화를 접하고 체제변환 사례에 대한 간접적 체험을 통해 통일 인식 확산
- 정량적 측면 : 모든 비교과 활동 참여 학생 수를 『통일교육 선도대학』 지정·육성사업 최종목표(입학정원의 10%)인 200명으로 산정 - 본 단위사업의 경우 30명 이상 목표(1년 동안 꾸준히 활동하는 동아리원 수)
- 정성적 측면 : 참여자들의 북한에 대한 올바른 인식 제고 및 통일에 대한 사유 유도

#### o 추진실적 - 북중러 접경지역 탐방

일시	2019년 7월 7일(일) ~ 7월 13일(토)
장소	북·중·러 접경지역(연길, 용정, 이도, 백두산, 방천, 훈춘/크라스키노, 라즈돌노예, 블라디보스톡, 우수리스크)
주제	대학생 통일 핵심리더 양성 '2019 북중러 접경지역 탐방단'
형식	출정식→현장탐방(세미나)→해단식

참석인원	전문가, 교직원, 의료진, 가이드, 경기도 관계자 총 8명, 최종선발 대학생 30명
------	---



<2019 북중리 접경지역 탐방> 모집 포스터



<2019 북중리 접경지역 탐방> 면접



<2019 북중리 접경지역 탐방> 출정식



<2019 북중리 접경지역 탐방>  
현장탐방: 백두산 탐방



<2019 북중리 접경지역 탐방>  
현장탐방: 중국 연길 연변과학기술대학교



<2019 북중리 접경지역 탐방>  
현장탐방: 러시아 블라디보스토크 극동연방대학교



<2019 북중리 접경지역 탐방>  
해단식



<2019 북중리 접경지역 탐방>  
해단식 - 시상

<p style="text-align: center;"><b>나의 참회록</b></p> <p style="text-align: right;">박정재_아주대학교</p> <p><b>#프롤로그</b> 7월 7일부터 7월 13일까지, 6박 7일에 걸친 북·중·러 접경지역 탐방이 끝나고 일상으로 돌아왔다. 우선 무사히 탐방할 수 있게 해준 아주동물연구소 관계자분들, 강 탐장님, 주주관님, 간호사님, 버스 기사님과 현지 가이드님께 이 글을 빌려 못다 한 감사를 전하고 싶다. 성공이 아닌 성장을 함께 꿈꿨던 30명의 탐방단원들도 벌써 보고 싶다. 하지만 다음 만남까지 각자의 위치에서 누구보다 치열하게 살아갈 것을 알기에 아쉬움을 조금이나마 달랠다.</p> <p>이번 탐방은 시작 전부터 무척이나 가슴 뛰었기에, 이후의 물런도 그만큼 컸다. 부끄럽지만 내 관심은 백두산 천지, 아르바트 거리 등 여행적 요소에 집중했었다. 하지만 단지동영비·4월청번비·라즈들노예역 등을 직접 경험하며 많은 생각이 들었다. 생각을 하는 순간부터 여행은 탐방이 되었고 이기적이었던 나는 사유, 이 기적을 통해 성장할 수 있었다.</p> <p>탐방 중 윤동주 생가에 방문하지 못한 점은 무척 아쉬웠지만, 윤동주와 같은 '만 24세의 나' 또한 사유의 종착이 반성과 성찰로 귀결될길 바랐다. 7일차에 걸친 긴 소감문의 제목을 '참회록'으로 정한 것도 이러한 연유(緣由)이다.</p>	
<p style="text-align: center;">&lt;2019 북중러 접경지역 탐방&gt; 사후과제-에세이(1등)</p>	<p style="text-align: center;">&lt;2019 북중러 접경지역 탐방&gt; 사후과제-영상(1등)</p>

**- 사업 홍보 영상 (출처: 유튜브)**



○ 추진실적 - 2019 한독청년포럼: 여러 도시의 기억

일시	2019년 7월 30일 화 ~ 8월 5일 월
장소	독일 베를린, 포츠담, 드레스덴, 라이프치히
주제	2019 한독청년포럼: 여러 도시의 기억
형식	현장탐방 및 독일청년들과의 포럼
참석인원	아주대 교직원 3명과 학생 10명

	
<p>&lt;2019 한독청년포럼&gt; 모집 포스터</p>	<p>&lt;2019 한독청년포럼&gt; 면접</p>
	
<p>&lt;2019 한독청년포럼&gt; OT</p>	<p>&lt;2019 한독청년포럼&gt; 현장탐방</p>
	
<p>&lt;2019 한독청년포럼&gt; Perspektiv3</p>	<p>&lt;2019 한독청년포럼&gt; Korea Verband</p>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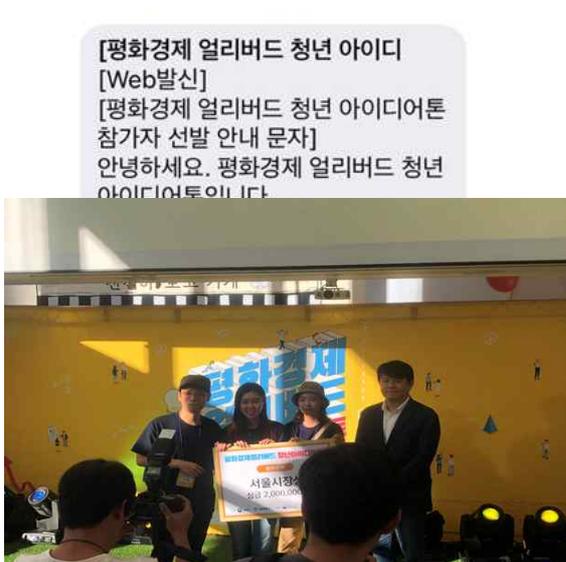
<2019 한독청년포럼> 프리드리히 나우만재단

<2019 한독청년포럼> 자체세미나



<2019 한독청년포럼> 개인미션1

<2019 한독청년포럼> 개인미션2



<2019 한독청년포럼> 사후활동

<2019 한독청년포럼> 사후모임

#### ④ 마음잇기

##### ○ 달성목표

- 대학생들에게 편지를 매개체로 하여 북한이탈주민들과 정서적인 연대감을 강화하고, 북한이탈주민이 남한 사회에서 이방인으로 격리되는 것이 아니라 온전한 사회 구성원으로 정착할 수 있게 기여
- 대학생들의 북한이탈주민의 정착 및 사회통합, 통일에 대한 관심도 제고
- 아주대학교 학생들뿐만이 아니라, 전국 지역의 대학교에서 편지를 수집 및 전달할 예정으로, 아주대학교 통일교육선도대학의 사회통합 모델 확산
- 정량적 측면 : 모든 비교과 활동 참여 학생수를 『통일교육 선도대학』 지정·육성사업 최종목표(입학정원의 10%)인 200명으로 산정 - 본 단위사업의 경우 150명 이상이 목표
- 정성적 측면 : 참여자들의 사회통합 및 통일에 대한 긍정적 인식 제고

##### ○ 추진실적

- 경기도청 벚꽃축제 마음잇기 부스행사

일시	2019년 4월 5일(금) ~ 4월 7일(일)
장소	경기도청 운동장
주제	마음잇기 시즌2: 북한이탈주민과 편지주고받기
형식	북한말 퀴즈 및 북한다과 시식, 스티커, 편지쓰기 등 체험부스
참석인원	학생 및 일반인 2,000명



<경기도청 벚꽃축제 마음잇기> 부스행사



<경기도청 벚꽃축제 마음잇기> 북한말 퀴즈



<경기도청 벚꽃축제  
마음잇기> 편지쓰기



<경기도청 벚꽃축제  
마음잇기> 행사사진

- [통일교육주간] 마음잇기 전시

일시	2019년 5월 20일(월) ~ 5월 24일(금)
장소	아주대학교 다산관 1층 홀 전체
주제	마음잇기 전시
형식	기존 마음잇기 편지들 전시 및 편지쓰기 부스
참석인원	학생 및 일반인 2,000명



<[통일교육주간]마음잇기 전시> 입구1



<[통일교육주간]마음잇기 전시> 복도1



<[통일교육주간]마음잇기 전시> 복도2



<[통일교육주간]마음잇기 전시> 출구1

## □ 통일교육 모델 보급·확산

### ① 아주한반도대학생포럼

#### ○ 달성목표

- 아주대학교가 위치하고 있는 경기도에 통일담론을 활성화시키고 통일에 있어서 지방정부의 역할을 인식시키는 기회 제공
- 기존 전문가 위주의 포럼이 아니라 대학생들과 소통하는 혹은 대학생들이 주도하는 통일포럼의 필요성
- 정량적 측면 : 각 포럼의 기본목표는 30명 이상 참석이며, 특히 한바탕 경우, 50명 이상 참여 목표
- 정성적 측면 : 대학생들의 통일논의 활성화 및 적극성 제고

#### ○ 추진실적 - 독일대사·수원시장 초청, 아주(Ajou) 특별한 통일토크

일시	2019년 1월 23일 수요일
장소	아주대학교 율곡관 영상회의실
주제	세션1. 지방정부의 남북교류 협력 세션2. 통일·평화교육과 지방정부의 역할 세션3. 독일의 통일 경험과 한반도의 미래
형식	수원시 시장 · 주한독일대사와 토크 대담 형식
참석인원	100명



<아주(Ajou) 특별한 통일토크>  
청중사진



<아주(Ajou) 특별한 통일토크>  
무대사진

## 염태영 시장 “수원시 남북교류협력 준비 핵심은 교류협력기금 조성”

등록 2019-01-23 오후 5:27:12  
수정 2019-01-23 오후 5:27:12  
김하리 기자

[수원=이대일 김하리 기자] “수원시 남북교류협력 준비과제는 ‘남북교류협력 기금 조성’과 역할 강화라고 생각합니다. 지방정부가 실질적인 교류사업을 추진하고, 시민은 교류사업의 주체가 될 때 평화와 통일을 앞당길 수 있을 것입니다.”

염태영 수원시장이 23일 아주대 율곡관 강당에서 열린 ‘아주(Ajou) 특별한 통일 토크’에서 ‘남북교류협력을 위한 제도적 준비의 핵심은 교류협력기금 조성’이라며 ‘기금 조성을 위한 조례 개정, 기금 활용 계획 수립 등 정책적 준비가 필요하다’며 이같이 말했다.

이날 아주대 아주통일연구소가 주최한 토크쇼에는 염태영 시장과 슈테판 아우어(Stephan Auer) 주한 독일대사기 패널로 참가해 ‘지방정부의 남북교류협력’, ‘독일의 통일 경험’ 등을 이야기했다.

염태영 시장은 “남북한 교류협력에서 지방정부 역할에 대한 기대가 커지고 있다”며 “교류협력을 위한 다양한 조직을 구축하고, 전문가를 양성해 역량을 강화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지방정부의 역할을 강화할 수 있는 제도적 기반을 마련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또 “지방정부는 법적 제도와 SOC(사회간접자본)를 바탕으로 남북한이 상호 이익을 공유할 수 있는 과제를 발굴하고, 지속 가능한 교류협력 정책을 일관성 있게 집행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https://www.edaily.co.kr/news/read?newsId=03860566622360672&mediaCodeNo=257&OutLnkChk=Y>

<아주(Ajou) 특별한 통일토크> 기사 1

대사님이 통일이 되기까지 물론 정부의 역할도 중요하지만 정부만큼이나 지방자치단체들의 역할도 중요하다고 말씀해주셨다. 그래서 처음 그 이야기를 들었을 때는 ‘어, 그러게 왜 우리는 정부차원에서만 교류를 하려고 하지?’ 라는 생각이 든 동시에 지방자치단체들의 역할이 중요하게 느껴졌다.

그런데 참 아이러니하게도 2009년도에 지방자치단체 차원에서의 북한과의 교류를 금지하는 법령이 만들어졌다고한다. 그래서 교류를 하는게 법에 위반된다고 하셨다. 북한과 우리의 관계는 특수하고 여러 안보사안들이 얽혀있으니 제한하는건가 싶다가도 시간이 갈수록 분단세대보다 그 세대를 경지 않은 나와 비슷한 세대들이 외교권 그리고 정치권을 잡고 있는데 그렇다면 통일을 공감하고 적극적으로 할 수 없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었다. 독일은 통일 전에도 서독과 동독이 인터넷에 발달로 반대편 사람들이 무엇을 하는지 어떤 생각을 하는지 쉽게 결합으로 인해 서로에 대한 이질감이 별로 없었다고 한다. 하지만 우리나라는 독일과는 다른 상황인 것 같다.

수원시가 꼭 북한 개성과 지체 도시를 성공적으로 맺어서 남북청년교류의 스타트를 끊었으면 좋겠다. 작년에 수원시 국제교류센터에서 공공외교단으로 선발되어 수원시와 가매도시에 있는 인도네시아 반둥에 파견을 다녀왔었는데, 그것처럼 상호간의 인력교류가 활발히 이루어지면 정말 좋겠다.



<https://blog.naver.com/2014kim/2214492757>

60

<아주(Ajou) 특별한 통일토크>  
후기 블로그

### o 추진실적 - 한반도의 바탕을 그리다(한바탕)

- 아주대학교 아주통일연구소는 한반도정책컨센서스와 공동주관으로 ‘한반도의 바탕을 그리다(이하 한바탕)’에 자문 및 지원
- 특히 한바탕의 방향과 주제, 내용과 전문가 섭외 등에 있어서 주도적 역할 및 지원

- 1차 한바탕

일시	2019년 4월 27일 토요일
장소	서울 용산전자 상상가(용산 Y밸리)
주제	북한을 보는 시각: 1953, 1987, 그리고 2019
형식	강연 및 공론장 모델의 토론(2개의 강연 및 3개 토의질문)
참석인원	80명

<p>한반도의 바람을 그리다 한바탕 1차</p> <p>주관 HPPC 협력 NK</p> <p><b>{북한을 보는 시각}</b> 1953, 1987 그리고 2019</p> <p>일시 2019년 4월 27일(토) 오후 2시~5시 대상 대한민국 2030 청년 장소 용산전자 상상가(용산 Y 밸리) 지원 bit.ly/hanbatang1 진행 강연 및 공론장 모델의 토론을 통해 청년들의 북한을 보는 시각을 확인 문의 한반도정책컨설팅센터 @---kppc---</p> <p>협력 속명도문리더십그룹 청 YOUTHNOW reconnect 후원 통일부 북한인권정보센터 남북사회문화협력교육원</p>	
<p>&lt;1차 한바탕&gt; 포스터</p>	<p>&lt;1차 한바탕&gt; 조O훈 소장님 특강 사진</p>

- 2차 한바탕

일시	2019년 6월 29일 토요일
장소	서울 용산전자 상상가(용산 Y밸리)
주제	전쟁과 분단을 넘어서, Are You Ready?
형식	강연 및 공론장 모델의 토론(2개의 강연 및 3개 토의질문)
참석인원	50명

	
<p>&lt;2차 한바탕&gt; 포스터</p>	<p>&lt;2차 한바탕&gt; 행사 사진</p>

- 한바탕 본회의 오리엔테이션(이하 OT) 및 본회의

일시	2019년 8월 2일 금, 8월 3일 토
장소	서울 광화문 HJ 비즈니스 센터
주제	2030, 청년이 그리는 한반도의 미래
형식	강연 및 공론장 모델의 토론
참석인원	(양일간 총)95명

일시	2019년 8월 14일 ~ 8월 17일(3박 4일)
장소	경기도 양평 블룸비스타
주제	2030, 청년이 그리는 한반도의 미래
형식	강연 및 공론장 모델의 토론
참석인원	총 88명

		
<p>취재영상 스틸컷</p>	<p>스케치 영상 스틸컷</p>	<p>인터뷰 영상 스틸컷</p>

## ② 통일교육 연합학술대회

### ○ 달성목표

- 통일교육 선도대학들의 성과 공유 및 모델보급 및 이를 통해 제안된 문제점을 수용하여 통일교육 모델을 발전적으로 보완
- 정량적 측면 : 본 학술회의에 6개 통일교육 선도대학 관계자 및 전문가 등 50인 내외
- 정성적 측면 : 학술회의 보고서 출간 및 배포

### ○ 추진실적

일시	2019년 12월 10일 화요일
장소	코리아나 호텔 7층 로얄룸
주제	2019 통일교육 선도대학 연합학술회의
형식	16년 지정대학 및 19년 진입대학 9개 성과발표 및 종합토론
참석인원	50명



<2019 연합학술회의> 포스터



<2019 연합학술회의> 행사사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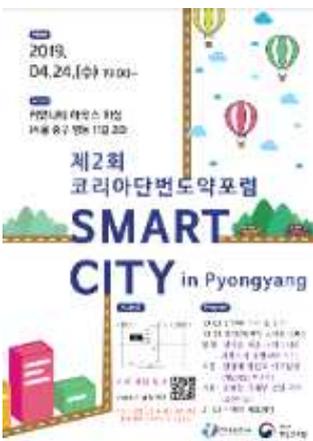
### ③ 통일교육 역량강화 세미나

#### ○ 달성목표

- 통일교육에 관심을 가지고 있는 대학교, 민간단체, 학회 등을 초청하여 세미나를 개최함으로써 아주대학교의 통일교육 경험 공유
- 세미나 개최를 통해 통일교육 모델 관련 연구 및 교육내용 논의 및 공유
- 세미나 평가를 통해 향후 통일교육 모델의 확산 및 통일교육 정책·사업의 활성화 방안 모색
- 정량적 측면 : 세미나에 30명 이상 참석
- 정성적 측면 : 참여자들의 북한 및 통일, 아주대학교 통일교육 모델에 대한 관심제고

#### ○ 추진실적 - 코리아 단번도약 포럼

- 미래세대 청년들과 시민들이 더욱 폭넓게 공감할 수 있는 통일교육 모델 형성 및 담론의 장 확대 위해서 '단번도약 포럼' 매달 진행 목표
- 2019년 2월 26일(화) 창립 세미나(30명 참여)
- 2019년 3월 28일(목) 제1회 포럼(80명 참여)
- 2019년 4월 24일(수) 제2회 포럼(180명 참여)
- 2019년 6월 25일(화) 제3회 포럼(150명 참여)
- 2019년 9월 27일(금) 제4회 포럼(20명 참여)
- 2019년 10월 18일(금) 제5회 포럼(20명 참여)
- 2019년 12월 13일(금) 제6회 포럼(20명 참여)

		
제1회 코리아 단번도약 포럼	제2회 코리아 단번도약 포럼	제3회 코리아 단번도약 포럼

제4회 코리아 단번도약 포럼	제5회 코리아 단번도약 포럼	제6회 코리아 단번도약 포럼

	<p>&lt;제2회 코리아 단번도약 포럼 발제자: 정O승&gt;      ...주최 측 외에 전유택 평양과학기술대학교 총장, 이병재 국토연구원 센터장, 진석용 LG경제연구원 책임연구원, 이명훈 정립건축 부사장, 염형국 공익인권법재단 변호사 등 각계 인사 180여 명이 참석하는 등 큰 관심을 보였다...정 교수는 “첨단산업은 단번도약 프로세스가 가능할 수 있다. 북한은 규제가 적고, 새로운 시행이 가능하며, 중앙정부의 의지만 있으면 신속하게 추진할 수 있고, 과학기술에 대한 애정이 깊으며 도시 단위에 적용하는데 관심이 많다고 들었다”며 “스마트시티가 삶의 질을 높이는 데 기여할 수 있는 도시기술이라면 북한도 혜택을 누릴 수 있으면 좋지 않겠느냐. 그 노력이 전 세계에 스마트시티를 수출하는데도 도움이 될 것 같다고 말했다...”</p>
<p>출처:  <a href="http://www.sisaweek.com/news/articleView.html?idxno=121068">http://www.sisaweek.com/news/articleView.html?idxno=121068</a></p>	

o 추진실적 - 특별학술회의

일시	2019년 10월 1일 화요일
장소	아주대학교 율곡관 영상회의실
주제	한반도 정세와 평화과제
참석인원	75명



④ 말랑말랑 과학토크쇼

o 달성목표

- 아주대학교의 통일교육 모델로 자리 잡은 ‘말랑말랑 과학토크쇼’는 통일교육 선도대학 사업으로 연속성 있게 진행되어왔으며 2019년에는 프로그램 보급 및 확산에 중점
- 아주대학교의 특성을 살려 북한의 과학과 과학기술 등에 대한 접근을 통해 북한이해와 통일에 대해 소통하는 자리 마련
- 정량적 측면 : 말랑말랑 과학토크쇼 4회 운영 중 2회 이상 타대학 개최 및 활동 참여 학생 수를 4차례 총 120명 이상 목표
- 정성적 측면 : 참여자들의 북한 및 북한 과학기술에 대한 관심도 제고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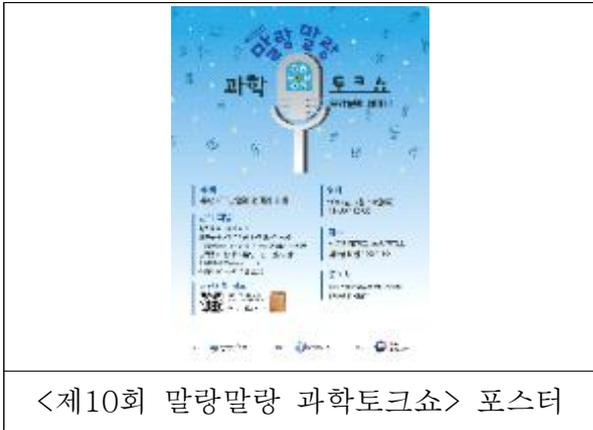
o 추진실적 - 제 9회 말랑말랑 과학토크쇼(2019년 1회차)

일시	2019년 4월 9일 화요일
장소	아주대학교 종합관 503호
주제	북한 ICT산업의 현재와 미래
형식	강연 및 토크쇼
참석인원	130명



○ 추진실적 - 제 10회 말랑말랑 과학토크쇼(2019년 2회차)

일시	2019년 5월 16일 목요일
장소	성균관대학교 수원캠퍼스 제1공학관 23219호
주제	북한 ICT산업의 현재와 미래
형식	강연 및 토크쇼
참석인원	150명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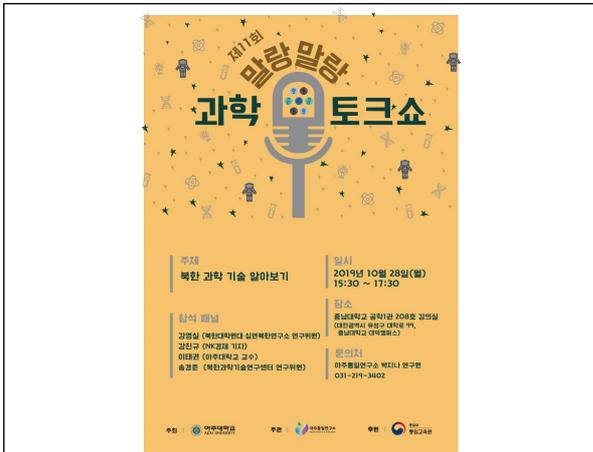
<제10회 말랑말랑 과학토크쇼> 포스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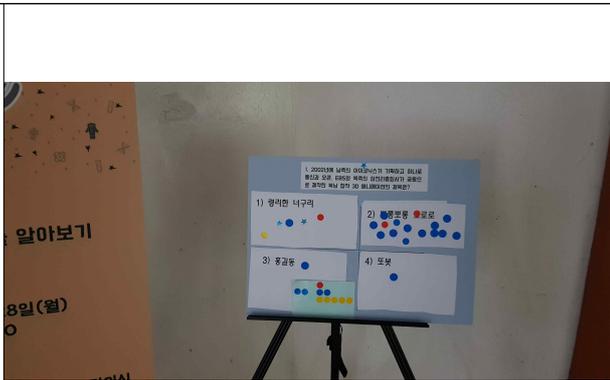
<제10회 말랑말랑 과학토크쇼> 청중사진

○ 추진실적 - 제 11회 말랑말랑 과학토크쇼(2019년 3회차)

일시	2019년 10월 28일 월요일
장소	충남대학교 공학1관 208호
주제	북한 과학 기술 알아보기
형식	강연 및 토크쇼
참석인원	15명



<제11회 말랑말랑 과학토크쇼> 포스터



<제11회 말랑말랑 과학토크쇼> 사전질문

○ 추진실적 - 제 12회 말랑말랑 과학토크쇼(2019년 4회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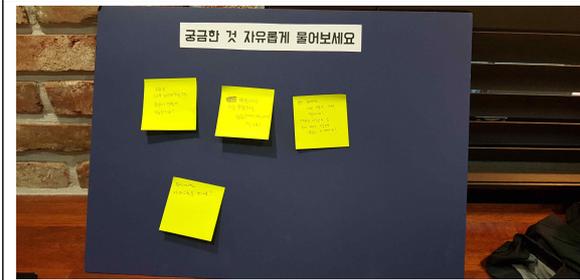
일시	2019년 11월 5일 화요일
장소	한동대학교
주제	북한 과학 기술 알아보기
형식	강연 및 토크쇼
참석인원	43명



<제12회 말랑말랑 과학토크쇼> 배너



<제12회 말랑말랑 과학토크쇼> 현수막



<제12회 말랑말랑 과학토크쇼> 사전질문



<제12회 말랑말랑 과학토크쇼> 행사사진

질문자

A. 피경미 분분치나 북한표 스태프들 보급수를 보통 '500안대'로 알고 있다. 북한 임구가 '2천 6백안대'임을 알았으면 '5명 중 1명'이 스태프들만 가지고 있는데 아무래도 도서지역 보급률이 저평가되는 불을 쬐었다.

대답

다 북한에서 스태프들만 사용하는 독립 계승이 있나?

말랑말랑 과학토크쇼 학생 질문

질문자

Q. 북한판 랩스투어 이름은 무엇일까요?

회답 A. 자료봉사

말랑말랑 과학토크쇼 퀴즈

⑤ 북한의 기술활용 창업 아카데미 : 아이디어뱅크 in 북한

o 달성목표

- 실사구시형 통일교육을 통한 통일담론 다양화 및 활성화
- 북한 과학기술 활용 창업 프로세스 연구 및 보급하여, 실사구시형 통일 인재 양성
- 창업선도대학으로서 아주대학교가 가지고 있는 창업지원시스템과 학교 구성원들의 창업에 대한 관심을 활용하여 통일과 연계
- 정량적 측면 : 아카데미 2회에 총 50명 이상
- 정성적 측면 : 북한 과학기술 및 산업에 대한 이해도 증가, 이에 따른 통일에 대한 긍정적인 인식 확산 및 특히 통일에 관심이 적은 것으로 판단되는 젊은층 중에서도 이공계 전공 학생들의 통일인식 제고

o 추진실적 - 아이디어뱅크 in북한 : 교육편(1차)

일시	2019년 10월 29일 화요일
장소	아뜰리에 247
형식	6개 강연 및 Q&A
참석인원	43명



<제12회 말랑말랑 과학토크쇼> 배너



<제12회 말랑말랑 과학토크쇼> 현수막

o 추진실적 - 아이디어뱅크in 북한 : 멘토링(1차)

일시	2019년 12월 26일 목요일
장소	H+ Y (카페)
형식	강O규 멘토(NK경제 대표)
주제	북한의 IT기술현황 및 전망
참석인원	멘티 6명



멘토링 1차 강O규 멘토



멘토링 1차 강O규 멘토

## ⑥ 동영상 강의

### ○ 달성목표

- 통일 무관심층인 청년·대학생층에 특화된 강연들로 통일의식 제고 및 통일 공감대 확산(사회통합형 통일교육)
- TED식 옴니버스 강연을 통해 통일·북한 관련 다양한 주제 및 청년·대학생들의 통일 무관심 현상에 대한 대안적 분석과 시각을 담은 종합적인 강연 프로그램 보급

### ○ 추진실적

- 북한·통일에 대하여, 청년들의 시각에서 다양한 주제를 다루는 TED식 강연영상 8편 제작
- 강연영상 리스트

강연자	주제(안)	비고
김O영	"통일은 리듬을 타고" 북한 문화예술 소개 및 북한이탈주민 남한 정착기	전 북한 회령시 국가안전보위부 예술선전대 통일부 통일교육원 전문강사 우양재단 평화통일강사
김 O	"예술과 노래를 통한 통일" 문화예술을 통한 남북한 공감대 형성 및 북한이탈과정 소개	『꽃이 피야 봄이 온다』 저자 콘텐츠 크리에이터 (오카리나김명TV 유튜브운영)
김 O	"박씨 물고 온 꽃제비" 역사교육을 통한 남북한 통합 및 북한이탈주민에 대한 이해	한국학중앙연구원 정치학박사 서강대 사회과학연구소 선임연구원
이O훈	"뉴미디어와 남북한소통, 가능해?" 뉴미디어와 새로운 콘텐츠 창출을 통한 남북한 통합 가능성 모색	『성취력 되는 사람들의 비밀』 저자 유튜브 마케팅·기업컨설팅 전문가

오○석	"통일과 청춘, 뭘 상관이래?" 청년세대의 통일인식 제고를 위한 대안적 접근법	팩트TV 아나운서 KBS 라디오 시사평론가 『LET ME START, 스물아홉, 취업대신 출마하다』 저자
조○훈	"품격있는 생존을 위하여" 남북한 통합을 위한 청년세대의 역할	북방경제협력위원회 위원 『북한을 읽다: 지속가능발전 프로젝트』 저자
정○진	"아직도 우리의 소원은 통일인가?" 남북한 통일담론의 변화와 대안의 모색	연세대 통일학 박사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상임위원
최○미	"청춘과 통일의 콜라보" 통일에 대한 청년층의 인식변화와 관심제고의 필요성	고려대 북한학 박사 경기남부통일교육센터 사무처장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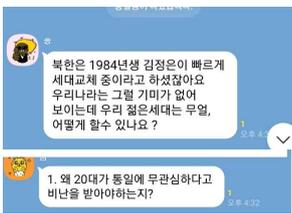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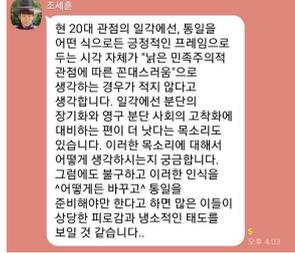
⑥ 지역 순회교육 : 찾아가는 통일X청춘 토크쇼, 젊은 끈대, 잠깨어오라!

○ 달성목표

- 지역순회 및 사회통합형 현장방문 강연과 대담을 통한 통일교육 모델 보급·확산
- 통일교육선도대학이 없는 지역대학에 직접 찾아가 통일평화담론 확산 및 청년의견청취(사회통합형 통일교육)
- '늙은 끈대'가 통일 무관심층으로 알려진 '젊은 끈대'를 찾아가는 로드쇼 방식으로 관련 일정과 강연전후 전문가 대담 등을 녹화한 브이로그 제작 및 보급 → 지속적으로 활용 가능한 통일교육 모델 보급
- 브이로그 영상 제작을 청년들의 흥미를 이끌 수 있는 예능형 통일교육 영상 모델화

○ 추진실적

- 비(非)통일교육 선도대학인 원주 한라대, 대구 경북대 강연 및 토크쇼
- 카카오톡 오픈채팅방을 개설하여, 자유로운 질문과 토론의 장 제공
- 관련 강연자님들의 강연 전후 토크 등을 담은 브이로그

			
오픈채팅방 개설 첩관	오픈채팅방 일부 질문	오픈채팅방 일부 질문	브이로그

### Ⅲ 2019년 사업 평가 및 향후계획 등

#### 1 잘된 점

- 이공계 중심 대학통일교육에 활용할 수 있는 교과목(안) 개발
  - 인문사회 중심의 통일교육 교과목 외에 이공계 및 보건의료 분야의 학제적 관점에서 실시할 수 있는 통일교육 교과목(안) 개발
  - 북한 개발 지원 전략과 연동하여 향후 남북교류 및 개발협력이 본격화할 시 현장에서 활용할 수 있는 내용을 연구하고 교육할 수 있는 교과목(안) 개발(공통교과5+북한개발협력16+남북한사회통합19 등 총40개)
- 타 지역·타 대학에 통일교육 모델 보급 및 확산
  - 아주대 이공계 중심의 통일교육 모델인 “말랑말랑 과학토크쇼”를 타 지역 및 타 대학에서 진행하여 새로운 통일교육 콘텐츠를 제공하고 대학생들의 통일과 북한에 대한 관심 및 흥미 제고
  - 2019년 전국민 통일의식 조사결과 통일의 필요성에 대해 가장 낮은 응답률을 보인 지역(강원도, 경상북도)에 소재한 비(非) 통일교육선도대학에 직접 찾아가 통일 강연 및 공개토론회 개최
  - 대학생 통일교육에 있어 상대적인 사각지대인 이공계와 일부 지역대학에 집중적으로 통일교육 콘텐츠를 전달하고 통일 및 평화에 대한 관심 제고 및 동기부여를 할 수 있는 기회 제공
- 참여형 통일대담 및 강좌를 통해 대학생들의 통일의견 개진 및 청취 기회 확대
  - TED식 움니버스 강연을 통해 통일과 평화에 대해 다양한 내용을 학생들이 한자리에서 접할 수 있는 특별강연 기획 진행
  - 특별 강연 외에도 강연현장에서 오픈채팅을 활용한 참가학생들의 진솔한 의견개진을 유도하고 통일에 대한 대학생들의 의견을 청취
  - 해당자료는 향후 대학생 통일교육의 시사점 및 참고사항으로 활용 가능
- 자체 성과지표 목표 달성
  - 2019년도 참여 학생수 목표 : 400명 ↑
    - ⇒ 2019년도 성과 3,214명(축제, 전시 제외)으로 목표대비 703.5% 증가
  - 2019년도 참여자 만족도 목표: 80% ↑
    - ⇒ 2019년 성과 81.8%로 목표대비 2.25% 증가

구 분	2016년		2017년		2018년		2019년	
	목표	성과	목표	성과	목표	성과	목표	성과
통일교육 참여 학생수(명)	320	1,389	360	2,460	400	2,780	400 ↑	3214
통일교육 참여자 만족도(%)	64.0	87.5	72.0	87.6	80.0	85.1	80.0 ↑	84.6

- 2019년도 통일교육 활성화 지수(%): 약 452%

## 2 향후 발전방안

※ 통일부 지원 종료 후 선도대학 사업의 유지, 발전방안 등

○ 교내 논의 중인 관련 학과 및 전공 개설 지속 추진

- 기존 통일트랙 교양과목 유지 및 전공과목 개설 추진, 특히 이공계열 및 의 료계열 전공에 대하여 co-teaching 방안을 재 논의하여, '전공수업+북한 및 통일연계' 수업 구상
- 한반도개발학과(전공) 개설을 지속적으로 추진하여 통일교육 선도대학의 성과를 지속 확장할 수 있는 플랫폼 마련

○ 대표적인 이공계 통일교육 모델인 “말랑말랑 과학토크쇼” 지속 시행

- 북한 과학기술 소개 및 실용적인 차원의 남북기술협력 및 발전방향을 소개 하여 통일에 대한 이공계 대학생들의 실제적인 관심을 제고

○ 언론보도(MBC, 연합뉴스 등) 등으로 주목받았던 “찾아기는 통일×청춘 토크쇼” 지속 시행

- 상대적인 통일교육 사각지대 지역이나 대학을 직접 찾아가 통일교육모델의 보급 및 확산 노력 지속

### 3 개선 및 건의사항

- 아주대학교 통일교육모델 보급·확산을 위해, 아주대의 통일교육을 필요로 하는 대학이나 기관을 선택하는 절차상 변화 필요
  - 아주대학교는 2016년부터 2019년까지 지난 4년간 통일교육 선도대학사업을 통해 이공계 중심의 통일교육모델을 제시하였으며 이를 타대학 및 기관에 보급하고자 직접 찾아가는 방식으로 진행하였으나, 향후 대학 간 네트워킹을 통한 수요조사 등, 필요로 하는 대학에 아주대 통일교육모델 보급 필요
  - 이처럼 모델보급 대상의 정확한 파악을 위하여, 통일교육원을 중심으로 한 수요조사나 대학 간 네트워킹을 구현하여 선 수요조사가 필요함
- 통일교육 확산을 위한 예산 집행 및 네트워크 구축 필요
  - 작년과 마찬가지로 2019년도 아주대학교 통일교육 선도대학의 모델 확산 목표에 따라, 타지역 및 타대학에서의 교육·행사 진행 과정의 행정 처리 문제 발생 : 교육진행되는 기관에 인건비 제공 혹은 MOU 등을 통해 통일교육 네트워크 구축 필요